

낮설지만 아름다운 청춘의 열병



< 그리고 우리 춤을 추었다 >

낯선 공간에서 낯선 언어로 펼쳐지지만, 열병을 겪어내는 청춘들은 익숙하고 아름답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조지아 국립무용단의 댄서 메라비는 섬세하고 우아한 춤을 춘다. 힙과 남성성을 강조하는 감독에게 매번 지적을 받는다. 새로 온 이라클리는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넘치고, 메라비는 그런 그를 경계한다.

두 사람은 오디션을 위해 선의 경쟁을 하고, 파트너가 되어 함께 연습하게 된다. 둘만의 연습이 계속될수록 메라비에게 이라클리는 라이벌이 아닌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커져만 간다.

영화 '그리고 우리 춤을 추었다'는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조지아 사회에서 자유로운 춤을 추고 싶은 젊은 댄서들의 이야기다.

스웨덴의 레반 아킨 감독은 2013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열린 페레이드가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조지아 출신 부모님을 둔 그는 조지아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 전통과 새로운 세대의 대립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기존의 전통을 지킬 수 있다



영화 '그리고 우리 춤을 추었다' 스틸컷. /옛나인필름 제공

보수적 사회에서 자유 꿈꾸는 댄서 이야기 조지아 성소수자 현실 조명... 25일 개봉

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영화는 촬영부터 시사회까지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다.

트빌리시 국립 발레단과 다른 무용단은 '조지아 춤에는 동성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에 협조하지 않기도 했다.

주인공 메라비의 춤을 만든 안무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조지아에서 시사회가 열릴 때는 극우 세력과 조지아 교회 신도들이 영화관 입구를 막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시상식인 굴드바게상에서 최고영화상과 각본상, 촬영

상, 남우주연상 등 4관왕에 올랐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에 스웨덴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주인공 메라비를 연기한 레반 겔바키아니는 조지아의 현대 무용수로, 그의 SNS를 본 감독의 설득 끝에 영화에 출연했다. 데뷔작인 이 영화로 굴드바게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유럽에서 각종 상을 받으며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다.

11월 25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윤도현 콘서트에 확진자 방문

일부 관객 검사·자가격리

가수 윤도현이 지난 15일 대구에서 개최한 콘서트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일부 관객들이 자가격리 및 검사 통보를 받았다.

최근 윤도현 소속사 디컴퍼니와 대구시 재난문자 등에 따르면 이날 15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윤도현 콘서트 '2020 어쿠스틱 포레스트'에 확진자 1명이 방문했다.

소속사는 "전체 관객 580명 가운데 확진자는 1명이었고, 당시 무중상 잠복기였으며 공연 5일 후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던 이날 13~15일 대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1,400석 규모의 공연장에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해 580명이 관람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로비, 공연장 내부

등 CCTV를 확인한 결과 방역 수칙 이행이 잘 이뤄졌고 추가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하에 확진자 근처 몇몇 좌석에 앉은 관객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검사통보 연락이 이뤄졌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대구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확진자가 해당 일시에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알리고 방문객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일부 관람객이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소속사는 "경호, 진행 요원 확인 결과 공연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는 관객은 화장실 이용 관객 외에는 없었으며, 실형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재를 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소속사는 "공연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담은 일부 기사와 악플이 퍼져 나가는 데는 공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BTS '온 마이 필로' 버전 뮤직비디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BTS '라이프 고스 온' 뮤비 1억뷰 돌파

편안한 파자마 차림 '온 마이 필로' 버전도 공개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팬데믹 속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뮤직비디오가 공개 이틀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새 앨범 'BE' 발매와 함께 공개된 '라이프 고스 온' 뮤직비디오는 지난 22일 오후 유튜브 조회 수 1억 뷰를 넘어섰다.

이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정국이가 감정을 담아 멤버들의 팬데믹 속 일상을 담담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공식 SNS에 '라이프 고스 온'의 '온 마이 필로'(on my pillow·나의 베개 위에) 버전 뮤직비디오도 공개했다.

'온 마이 필로' 버전 뮤직비디오는 팬데믹 속 일상이라는 주제의식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멤버가 침대 위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라이프 고스 온'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멤버들은 파자마 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사진을 찍어주거나 베개로 장난을 치기도 한다. /연합뉴스

2020 중남미영화제 26일 광파르

29일까지 서울 아트나인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소개된 중남미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0 중남미영화제'가 오는 26~29일 서울 예술영화전용관 아트나인에서 개막한다.

개막작은 '공포의 역사'(2014)로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아르헨티나의 젊은 감독 벤자민 나이스타르가 연출을 맡은 장편 영화 '로호'다.

197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사회의 불

합리성과 엘리트의 위선을 담은 영화는 2018년 산세바스티안영화제 심사위원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아르헨티나 아카데미영화상 6개 부문을 휩쓴 화제작이다.

한·중남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한국 관객들이 중남미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중남미협회 홈페이지(latinamerica.or.kr)와 페이스북(facebook.com/KCLA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공조

오디피우스는 한평생을 몸부림쳤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MBC TV 월화드라마 '카이로스'는 현재를 사는 대기업 이사 김서진(신성록 분)과 한 달 전 과거에 사는 한애리(이세영)가 매일 오후 10시 33분, 단 1분간의 연결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공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딸과 아내를 잃은 대기업 이사 서진과 실종된 엄마를 찾으려는 아르바이트생 애리가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 오디피우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애리는 서진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앗아간 친구 임건욱(강승윤)을 죽이면서 교도소에 갇혀야 했던, 엄마를 찾으려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해야 했던 자신의 미래를 바꾼다. 서진 또한 애리의 도움으로 불법 자재를 사용했다는 혐의와 애리의 어머니인 광송자(황정민)를 살해한 혐의를 벗는다.

이들은 매번 자신의 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운명은 이를 비웃기라도

신성록·이세영 주연 MBC 월화드라마 '카이로스' 거듭되는 반전으로 흡입력 높여... 배우 열연도 호평



MBC TV 월화드라마 '카이로스'.

/MBC 제공

하는 듯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꿔 다시 이들의 삶을 잠식한다. 시청자들이 애리와 서진이 오디피우스의 신탁과도 같은 각자의 운명을 단 1분의 공조로 벗어날 수 있을지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스어로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 예정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설정에서 '시그널'(2016)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시그널'이 26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극을 끌고 가야 했다면, '카이로스'는 과거와 현재의 간극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설정돼 대회 속도감 있는 전개와 거듭되는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하지만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드라마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3%대에 머물렀다. 같은 시간대에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1월 24일 (음력 10월 10일)



48년생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인다. 60년생 하는 일마다 잘되니 신바람이 난다. 72년생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얻는다. 84년생 정말 운세 좋은 날이다.



49년생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61년생 갑언이설에 속지 말라. 73년생 최선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하라. 85년생 괜히 걱정되고 한숨이 나온다.



50년생 다소 억울한 일이 있겠다. 62년생 모란 돌이 정 맞는다. 74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라. 86년생 실력보다 저평가되는 현실이 슬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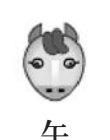
51년생 내려놓으면 더 많이 얻는다. 63년생 운세가 나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75년생 열심히 하면 된다. 87년생 순리를 따르면 매사가 순조롭다.



52년생 마음만 바쁘고 일의 진척은 더디다. 64년생 지나친 자식사랑이 오히려 독이 된다. 76년생 시작이 반이다. 88년생 믿을 것은 파피리 밖에 없다.



41년생 운병은 은이고 짐목은 금이다. 53년생 행복의 문이 열린다. 65년생 첫인상을 너무 믿지 말라. 77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42년생 선행을 베풀고도 욕을 듣는다. 54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6년생 말 없는 말이 천리간다. 78년생 하나를 베풀면 둘을 얻는다.



43년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55년생 기대만큼 만족스럽다. 67년생 추진 중인 일에 장애가 생긴다. 79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44년생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다. 56년생 모로도 서울만 가면 된다. 68년생 허세를 부리면 후회할 일이 있겠다. 80년생 준비된 바는 기회를 얻는다.



45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57년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힘들다. 69년생 신경 쓰이는 일이 있겠다. 81년생 내일을 만나는 날이다.



46년생 손뽀에 뜻을 단 듯하다. 58년생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얻는다. 70년생 욕심이란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 82년생 공부가 잘되고 머리가 맑아진다.



47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59년생 순조롭게 일이 술술 풀린다. 71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83년생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